판화 속 정토 장엄도 보며 극락세계로…

'영원한 행복의 세계 – 동아시아 정토판화'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5월 2일 ~ 6월 26일

한 · 중 · 일 등 정토관련 자료 70여 점 전시
최고 수준 증상사 정토만다라 원목판목 소개
韓 유물 덕주사본 아미타경 아미타래영도 등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세계적인 고판화 전문박물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전을 개최한다. 고판화박물관은 5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2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진행하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동아시아 정토판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유물은 한선학 관장이 30여 년 동안 수집한 6000여 점의 동아시아 고판화 유물 중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베트남 등의 정토관련 자료 70여 점을 선보인다.

고판화박물관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을 위해 역병을 물리치는 '마음의 백신 다라니', '동아시아 호랑이 판화' 전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전 역시 역병이나 기근 등으로 고통 받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자유와 안락이 보장된 영원한 행복의 세계인 정토를 그리고 판각하여 제작된 정토 장엄도를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주고, 탱화나 전적의 삽화로 등장했던 정토불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토만다라를 찍은 증상사 정토만다라 원판 판목이 소개된다. 판목은 정토불교가 가장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 일본 도쿄의 유명한 정토교 사찰인 증상사에서 1845년 판각 완료한 가로 105cm 세로 109cm 대형 목판 원판으로, 대형 산벚나무 세 쪽에 나누어 정토세계를 판각했는데, 조각 솜씨가 정교하고 세밀하여 판각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정토만다라 판목을 살펴본 고판화학자인 박도화 박사(前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실장)는 정토불교가 발전한 일본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관경만다라 판목 중에서 현존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평가했다. 특히 판목 뒷면에 제작 시기 등이 묵서되어 있어 정토만다라 판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일본 증상사 정토만다라 판목을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증상사의 정토만다라 목판화를 수집하게 된 한선학 관장은 2020년 12월 야후 옥션을 통해 10여 년 전에 수집했던 정토만다라 목판화의 판목 원판을 치열한 경쟁 끝에 낙찰받은 후 공식절차를 밟아 일본 세관을 통해 무사히 고판화박물관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한국고판화학회, 세계고판화연구보존회 연구원들과 함께 판목을 분석하고 조사하여


일본 증상사 관경만다라 다색 판화.

특별전을 통해 공개하게 됐다. 한 관장은 "30여 년 동안 고판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가져온 결실이며,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이어진 것"이라며 "30여 년 동안 최고의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시회에 처음으로 출품되는 주요한 작품으로는 16세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발원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정토만다라 다색판화와 1731년 제작된 지광 정토만다라, 19세기 제작된 무량수경만다라와 불설아미타경 채색판화 등이 소개된다. 정토삼부경의 내용을 판화로 찍고 채색을 올려 극채색화로 제작된 일본 불화판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한국 유물로는 500여 년 전 조선에서 만들어진 덕주사본 아미타경의 아미타래영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2호)와 용천사본 아미타경에 등장하는 반야용선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3호)를 비롯하여, 실상사판 16관경과 관무량수경 등이 소개된다.

중국 유물로는 명말 청초에 제작된 '아미타래영도' 목판을 비롯하여 광저우 불산에서 제작된 반야용선을 새긴 '반야용선도', 극락세계를 아름다운 채색 석판화로 표현한 남경 금릉각경처의 '극락장엄도' 판화가 소개된다.

정토신앙은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려는 신앙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함으로써 내세에 서방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아미타불의 48대원에 근거한 것이다. 아미타불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뜻을 세우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48대원을 세웠으며, 오랜 기간의 수행을 거쳐 본원을 성취하고 부처가 됐다. 아미타불은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십만억불토를 지나 있는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지금까지 설법을 하고 있다. 이 극락세계는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이상적인 세계로, 대승불교에서는 정토의 대표적인 곳으로 삼고 있다.

한선학 관장은 "이번에 기획한 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의 역량이 총망라된 대규모 전시회로, 특히 그동안 수집된 고판화박물관 유물 6000여 점 중 불교회화사와 판화사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토'와 관련된 목판과 전적, 불화판화 등 100여 점을 선별했다. 관련학자들과 전문가들 분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동아시아인들이 꿈꿔왔던 영원한 행복의 안식처인 정토의 세계를 고판화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함으로써 동양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033)761-7885

다시 찾은 성보문화재 만나보세요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사진 오른쪽)과 지장보살입상(사진 왼쪽). 모두 서울 한 사립박물관장 수장고에 은닉돼 있었으나 2016년 발각돼 환수됐다.

불교중앙박물관 '환지본처' 기획전
4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

2016년 사립박물관 은닉 성보 확인
대법원서 유죄 및 몰수 명령 확정해
사찰로 환지본처 前 국민들에 공개

1989년 9월 25일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에 봉안됐던 목조관음보살입상과 목조지장보살입상이 문화재 전문 털이범에 의해 도난됐다. 도난과정은 확인되지 못했지만, 범인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를 노려 사찰에 침입해 두 보살상을 훔쳤다. 위봉사의 목조관음보살입상과 목조지장보살입상은 도난 후 행방이 묘연했지만, 2016년 서울 종로 사립박물관장 A씨의 수장고서 발견됐다.

A씨의 범행에 꼬리가 잡힌 것은 아들 B씨가 은닉해오던 성보문화재 11점을 사찰 등에 처분하려다가 발각되면서부터다. 결국 은닉 불교문화재 7건 25점은 압류됐고,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이운 · 소장돼 있었다. 하지만 본래 자리로 당장 돌아가지 못했다. 몰수 명령이 나지 않아서다.

결국 종단과 피해사찰 7곳은 '도난불교문화재 피해사찰협의회'를 구성하고, 압수된 성보를 본래 소유자가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진행했다. 종단과 협의회의 노력 끝에 성보의 도난과 은닉 관련 재판 최초로 대법원에서 압수물 몰수 선고가 2020년 최종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불교문화재의 유통은 일반적 사례가 아니다"라며 성보문화재의 부적정한 은닉과 처분에 대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이는 도난 성보의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이 4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하는 기획전 '환지본처(還至本處) - 돌아온 성보문화재 특별공개전'은 종단과 사찰, 정부 기관들의 노력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성보문화재 32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총 2부로 이뤄진다. 1부에서는 사립박물관에서 은닉됐다가 몰수 판결을 받아 환지본처하게 된 성보들이 공개된다. 주요 전시 문화재로는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지장보살입상 △해남 대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문경 운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대세지보살좌상 △장수 팔성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 등이다. 2부에서는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사례와 가장 많은 도난이 이뤄진 불화에 대한 조명들이 이뤄진다.

전시된 성보문화재들의 면면을 보면 도난 이후 새겨진 아픈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성보 도난 예방과 유통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 실제, 가장 많은 도난이 이뤄진 불화의 경우 원활한 유통을 위해 문화재 전문 털이범들은 불화를 절취한 뒤 화기(畵記)의 사찰명을 검게 칠해 지우거나 붉게 덧칠하기도 했다. 이는 원소장처를 지우고 도난 문화재임을 감추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한편,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환지본처하는 성보문화재 7건은 전시가 종료되면 원래 봉안처인 사찰로 돌아가게 된다. 성보문화재 환수와 이운을 부처님 전에 고하는 환수고불식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